

짓밟히는 자존심

김대호 / 귀순자

자존심은 대체로 가진 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으면 구걸하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면 그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고 나라가 가난하면 그 나라 국민이 멸시를 받게 되는것이 아닌가. 2년전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 무역 면담을 갔을 적의 일이다. 중국 연변의 도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양에는 중국인 보따리 장사군들의 편의를 위한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장사군들은 중국에서 낮은 생활 수준의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최하 상품을 북한에 가지고 나와 팔고는 이윤을 얻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수요에 따르는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그나마 중국 상품들이라도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보따리 장사군들은 북한 사람들을 거지 취급을 하며 멸시를 하였다. 나는 그들의 건방진 행동 거지를 볼 때마다 겹쳐드는 아니꼬운 생각을 털어 버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조선 사람의 자존심을 보여 줄 것인가? 눈꼴이 사나울 때마다 솟구치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중국인 시장에 나가 장사군에게 담배를 사게

되었다. 그 장사군은 30대의 젊은 남자였다.

- 담배를 한갑 사시다.
- 무슨 담배를 사시겠습니까?
- 중국 담배에서 제일 좋은 담배가 어떤 거지요?

내가 이렇게 묻자 장사군은 대답 대신 잠시 나를 훑어 보았다. 북한 사람치고 아직 중국 담배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눈치였다. 사실 나는 중국 담배를 좋아하지 않았다. 무역 부문에서 사업하다 보니 자연 수준이 높아진 것이었다. 장사군 여인이 말했다.

- 담배는 별담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뱀뱀담배가 제일 좋습니다. 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요...
- 얼마인데요?
- 20원입니다.
(20원?)

북한돈 20원이면 가치가 없지만 적은 돈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노동자 월 평균 노임이 70원이니 그것으로 중국 담배를 사려면 3갑 반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이다. 나는 이같은 타산을 해 보며 담배를 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담배

를 한대 꺼내 불을 붙혀 한보금 빨고는 계획대로 트집을 걸었다.

- 이거 무슨 담배맛이 이렇게 더럽소?
-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중국 담배는 다 이따위요? 맛이 더러워서 피울 수가 없단 말이요, 장사를 하셨으면 좀 온전한 담배를 가지고 와서 파시오.

에이하고 나는 우정 큰소리로 신경질을 부리며 중국 장사꾼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꺾 채로 비틀어 땅에 던지고는 발로 밟아 버렸다. 그러자 중국 장사꾼들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였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쾌하게 느끼며 걸음을 옮겼다. 흥 이제는 조선 사람을 거지라고만 볼 수 없겠지. 이것이 나의 바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곁에 있던 서너명의 청년들이 내가 담배를 밟아 버린 곳에 우르르 모여드는 거였다.

- 아니 이렇게 좋은 담배를 왜 버리지?
- 아이고 아까와라.

청년들은 중국 장사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담배를 주었다. 순간 나는 모닥불을 뒤집어 쏘 마냥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정신병자 같은 놈이 되고 말았고 또 북한 사회의 망신을 더 시킨 것이다.

이미 쓰러진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추켜 세워 보려던 노력이 그만... 정말 나의 행위는 공연한 것이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망신스러웠던 이야기를 한가지 더 하겠다. 회령 호텔에서 중국 연변 교환 공사와 면담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우리측 대표단은 원자력 공업부의 조선 제6철

비 수출입회사 수출입 과장 이권대를 단장으로 하여 나와 송명환 대표, 그리고 당 위원회 군사 부장으로 구성되었다. 전문 무역 일군이 아닌 당 위원회 군사부장이 참가한 것은 무역 면담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인과 면담에 반드시 보위부의 요원이 참가하는데 때로는 당 간부가 참가하는 경우도 드문히 있었던 것이다.

중국 대표단은 이성진 총정리를 비롯하여 박종범 정리와 김창석 정리들로 구성되었다.

망신스러웠던 일은 면담 뒤끝에 마련된 연회석에서 있었다. 그 주인공은 나름아닌 당 위원회 군사부장이라는 자였다. 외국인 면담에 처음 참석한 그는 식탁에 차린 중국산 술을 비롯한 기름진 음식들에 현혹되어 취기가 오르자 점점 체면을 잃어 갔다.

선생님들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등소평 동지와 비슷하지요?

군사 부장이 술 기운에 벌개진 얼굴을 병갈 거리며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중국측 대표인 박 정리가 말했다.

- 예, 처음보는 순간에 등소평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 별명이 뭘지 아십니까?

- 알쎄요?

등소평 동지랍니다.

- 아 그래요, 부장 선생은 우리 대륙의 등소평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영광이겠습니다.

- 그럼요, 하 하 하.

중국 대표들은 유쾌하게 웃어댔고 우리 대표들은 군사부장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웃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작은 키에 생김까지 등소평과 닮은 데가 많아 그런 별명으로 불리운

기였다. 군사부장은 그날 연회석에서 중국 음식들에 제각각 모양으로 체면을 다 던져 버린채 폭주를 해댔다. 곁에 앉아 있던 이갑대 단장이 그 꼴을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부장 동지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군사 부장은 웬 잠긴이냐는 듯이 단장을 흘기보며 허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 이렇게 좋은 술을 마시고 좀 귀하면 어떻소? 응당한거지. 음식엔 사상이 없단 말이요. 그러나 동부대도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오늘날엔 실컷 마시요.

군사 부장은 벌써 완전히 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말거나 중국측의 박 경리는 그의 술잔에 연신 술을 채워 주었다. 그렇게 세월은 자가 얼마나 마시는가 보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았다.

군사 부장은 술잔에 술이 차기 바쁘게 마셔대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을 먹이를 받아 먹는 강아지의 모양과 흡사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급하게 엉기주춤하며 식탁에 “왜 예!” 하고 토해 버렸다. 하이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들은 사망으로 튀어나며 주위 사람들의 인상을 찌프리게 하였다. 연회석은 순식간에 수라상이 되고 말았다. 나는 재빨리 군사부장을 부축하며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군사부장은 화장실에 들어서자 변기통을 붙들고 주저앉아 토하며 중얼거렸다.

- 여, 지사장 동부 내가 토하는데 이자 먹은 중국 음식들이 도록 다 나왔겠지?

예, 벌써 다 토해 버렸습니다.

오랫만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 했더니, 아깝군 정말 아까워. 조선 사람의 입이

이렇게 천한 것만 아닐텐데...

홍 바보같은 자식, 나라 망신을 다 시키면서도 뭐 토해 놓은 것이 아까워? 그렇게 아까우면 토해 놓은 것을 훔아 먹을 노릇이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욕질하며 비양거렸다.

- 그렇게 아까우신 걸 토하긴 왜 토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이요 정말 아깝군. 이미 다 토해 버렸으니 할 수 없지. 왜 왜.

군사 부장은 이렇게 지껄여대며 변기통에 계속 토해냈다. 변기통에 머리를 틀어박고 토하는 그의 모습은 조리하기 그지 없었다. 마치고 그것이 북한의 참 모습인듯...

당 간부라는 자의 불량이 그 정도이니 북한 주민들의 체면은 더 논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 당 간부가 표현했던 유머가 생각난다.

- 우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신 걸 보면 참 현명하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밤에 고기국을 먹을 때 우리 인민들은 우리 식대로 강냉이 죽이라도 먹고 혁명을 하자

는 게 얼마나 독창적이고 현명한가 말이야. 이 얼마나 그럴듯한 표현인가. 현실 그대로 까놓고 표현하면 반혁명 분자로 불리겠으니 이렇듯 모한 유머로서 김정일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의 독재 체제와 주민들의 짓밟힌 삶과 자존심은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새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암담한 북한의 현실은 이제 오래지 않아 끝장나고야 말 것 이며 우리 민족은 조국 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統

<북한기행>

경협기자 이보강

ART하이

